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 범죄 타격 강화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다발 태세를 일층 억제하고 경내 불법분자와 경외 사기집단이 결탁하는 범죄사슬을 차단하고자 제4진 8건의 특대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 범죄사건을 공시 및 감독처리했다.

이번에 공시 감독한 제4진 8건의 특대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사건은 각각 강소성 무석 '박상단지'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강소성 염성'정상과학기술'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절강성 성주 '호지단지'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복건성 천주 '5.27'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복건성 통암 중경 '성원그룹'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중경 구룡파 '11.15'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사천 로주 '3.21' 계열 전신인터넷 사기사건, 운남 노강 '8.09' 전신인터넷 사기사건이다.

상술한 사건은 모두 경외 전신인터넷 사기집단의 중대 사건과 관련되어있으며 대부분 경내 인원을 조직하여 국 (변) 경 밀월 방식으로

경외에서 전개한 사기범죄 활동으로 서 내부 조직 구조가 엄밀하고 경내 외가 서로 결탁하며 사건 관련자가 많고 관련 금액이 거대하며 어떤 범죄집단은 고의상해, 불법구금 등 엄중한 폭력범죄 혐의가 있다.

2022 년이래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이미 13 건의 특대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 범죄사건을 감독처리했다. 공안기관, 검찰기관은 다국 전신인터넷 사기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물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긴급 지불정지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플랫폼 시스템을 최적화, 업그레이드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대종이 사기당한 자금 도합 2,359 억원을 만회했다. 사건에 련루된 자산에 대한 조사 압수 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고 재산형 적용 강도와 사건에 련루된 재물 처리 반환 강도를 높여 경제손실을 최대한 만회했다.

/ 신화넷

길림 통상구, 신판 대외 출입경 변방검사 표지 사용



길림 15 개 통상구,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 표지 사용

길림변방검사총역 변방검사처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지난 12월 1일부터 길림변방검사총역 15 개 통상구에서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출입경 관광객들이 따뜻한 통관을 체험하도록 하고저 길림성변방검사총역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웃 국가의 실체와 결부하여 로고에 로어, 조선어 두가지 문자를 추가했다.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 표지는 주표지와 기능표지 두가지로 나뉜다. 주표지는 대외개방통상구에 출입경 변방검사기관을 알리는 표지로 중국이민관리 표지와 '중국이민관리'라는 문구가 함께 씌여져있다. 그중 중국이민관리 표지는 이미 2021년 4월 2일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기능표지는 대외개방통상구의 출

입경 변방검사 현장에 관련 통로 시설과 안내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구체적으로 통로 표지 16 개, 공공구역 표지 6 개, 작업 장소와 시설 표지 21 개, 제시 표지 9 개, 권고 표지 9 개, 안내 표지 9 개 등 6가지 종류에 70 개로 세분화되었다.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 변방검사 현장 표지의 사용은 변방검사 현장 집법근무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새시대 이민관리기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더욱 잘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중외 인원이 출입국통상구에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정확하게 획득하는 데 더욱 편리를 제공하고 자각적으로 출입경 변방검사기관의 변방검사 업무를 협조하여 질서있게 검사를 받고 순조롭게 통관할 수 있게 해 통관 체험을 향상시킨다. 이는 이민관리 사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인지도를 한층 더 제고하는 데 유리하고 많은 출입국인원들을 감독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준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이민관리 경찰에게 문의하거나 12367 이민관리 열선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 리전기자



‘다국 중매군’에 속아 랑패 보는 일 없도록

출국 맞선, 결혼 중매군 실행 신고

최근 들어 리익 갈취를 목적으로 '다국 중매군'을 자칭하며 외국 녀성을 결혼 상대자로 소개한다고 국내 독신 남성들을 꼬이는 불법분자들이 있다. "집도 차도 살 필요가 없고 납채도 적으며 10 여만원만 있으면 외국인 안해를 맞아들일 수 있다." 사기군의 감언리설에 속아 아름답던 결혼꿈이 '악몽'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산둥성의 주모, 리모가 타인을 조직해 밀입국시킨 혐의가 하진현인민검찰원의 공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주모에게 유기형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만원을 부과하고 피고인 리모에게 유기형 2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벌금 1만 5,000 원을 부과했다.

복건성의 주모는 미니영상 플랫폼에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안해를 주선한다는 정보를 올렸다. 마침 결혼 정보업계를 운영하고 싶지만 미혼 녀성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산둥성의 리모가 이 동영상을 보고 주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후 두 사람은 리모가 국내에서 미혼 남성을 찾고 주모가 파키스탄에서 미혼 녀성을 소개하기로

했다. 리모가 국내 미혼 남성에게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모는 인당 12 만원을 받기로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을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

리모는 위챗 모멘트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결혼 선전에 열을 올렸다. 때마침 수차례 맞선 보기에 실패하고 35 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우던 미혼남 왕모가 리모의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했다. 왕모는 본인의 조건으로 당지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고 납채도 20 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집과 차도 마련해야 하는 반면 10 여만원에 외국인 안해를 맞이할 수 있다니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왕모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 녀성과의 결혼이 저어되기도 했지만 리모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계약서를 작성해 맞선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데다가 리모의 영업 장소와 허가증까지 직접 보고 나니 걱정이 사라졌다. 하여 선뜻 계약금 1만 5,000 원을 지불했다. 며칠후 왕모는 리모를 따라 선을 보러 해외로 다녀왔

고 이 과정에 리모에게 8만 5,000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하지만 왕모가 파키스탄에 머무는 3~4 개월 동안 '외국 안해'를 집에 데려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결혼식을 올린 지 10 일째 되던 날 신부가 돈을 더 요구하며 귀국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몇번 만나주지도 않자 왕모는 차츰 사기 의혹이 들었다.

반모와 장모 역시 왕모처럼 사기군의 말을 경솔히 믿었다가 랑패를 보았다. 파키스탄에서 주모가 이들을 상대로 맞선 주선, 결혼 납채, 후속 처리, 결혼식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반모, 장모와 왕모까지 3 명이 추가 지불한 금액은 37 만원이 넘었다. 반모와 장모 역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반모의 결혼 상대가 늘 종적을 감추는가 하면 장모의 '신부' 가족에서 주모를 비롯한 왕모, 장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이들은 당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 주모는 몇달간 구속되기도 했다.

귀국후 왕모, 반모와 장모는 리모를 찾아 계약 불리행에 따른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미 주모

와 파키스탄의 '신부'측에 지불한 터라 리모는 환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리모는 공안기관을 찾아 자수했으며 공안기관은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주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이며 하진현인민검찰원 제1 검찰부 주임인 류규분은 비록 2 명의 피고자 실행을 선고받았지만 맞선을 본 몇몇 남성들은 대부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외국 관련 결혼 소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관련 결혼 소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외국 관련 결혼소개기구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관련 결혼 소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허위 사유를 꾸며 출국할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제결혼은 관련되는 문제가 많으며 잘못 처리할 경우 외국 관련 사건을 일으키기 쉽다. 감수록 많아지는 결혼사기극에 대비해 젊은이들은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어서는 더욱 안된다.

/ 법치일보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중국 류학생 노린 한국 보이스피싱 함정 조심해야

한국에서 '화장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세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이 올해초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이 최근 전해왔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한 중국 류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아르바이트생이 고객과 만나 화장품 구매 비용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회사내 이른바 '구매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이들을 유도했다.

회사내 '구매 담당 직원'이 실제 화장을 구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명했다. 실상은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구매 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른바 '고객'은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였다. 조직은 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구매 담당 직원'이라는 자에게 최종 돈이 흘러들어갔다.

한국 대전대덕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은 중국 류학생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둔갑하여 범죄 련루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류사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활동한 한 중국인 류학생은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고객한테서 돈을 받게 되니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련루된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피해자인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형사변호를 위임했고 재유의 도움으로 최종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한국 형법 제 245 조의 5 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자칫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고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지금은 아르바이트 파위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당 중국인 류학생은 말했다.

이 같은 범죄 수법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어 대금 전달을 요구하는 아르바

이트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특별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가지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먼저,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르바이트 내용과 장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승인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피할 수 있다.

허용된 아르바이트 분야는 보통 음식업 보조, 사무 보조, 통역 등이며 정해진 시간 (학기중 주당 최대 30 시간) 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러한 제한된 분야와 시간 준수는 재한 국 류학생들이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은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팁을 공유했다.

1.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 받기 : 한국 법무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적

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불법활동에 련루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2. 학교 류학생 담당자와 상담 : 아르바이트 구직 시, 학교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유혹적인 조건 경계 : '고수의 보장', '간단한 업무'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일자리라면 신중히 검토하고 허가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한국어 능력 향상 : 법적 서류를 리해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한 외국인 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이는 재한 외국인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련루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재유측은 전했다.

/ 유경봉기자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 책임분쟁 전형사례 발표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5 개 교통사고 책임분쟁 전형사례를 발표해 전형사례 선전교양과 시범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측이 교통안전 책임 의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했다.

피침권인을 제때에 구제하는 것은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 재판에서의 인민법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인민법원은 사법실천에서 배상 범위를 적당히 확정하고 각측 당사자의 책임을 정확하게 배치하며 제때에 당사자를 구제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법정 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여전히 로동으로 수입을 획득한 피침권인의 휴공비 배상 청구를 지지했는데 이는 피침권인에 대한 보호를 구현했다.

교통사고는 흔히 인신, 재산 손해 심지어 상해, 사망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여 피침권인을 생활난에 빠지게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보험회사를 법에 의해 교통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가입의무인이 교통강제보험책임 한도액내

에서 교통사고 침권인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제때에 피침권인의 권익을 수호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비기동자측이 비교적 큰 과실을 갖고 있으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동자측의 배상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고 판결하고 비기동자 운전자들이 안전책임 의식을 증가해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독촉했다. 이외에 인민법원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에서 산생된 사고 손해에 대해 운전자와 탑승인이 합리하게 부담한다고 판결해 '호의동승'에 대한 긍정과 보호를 구현하는 한편 운전자도 책임 관념을 강화하도록 독촉했다.

이 밖에 인민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경험을 모색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다원화 분쟁해결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대중의 권익 수호에 편리한 통로를 힘써 구축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을 소송할 때 인민법원은 보험회사를 도로로 설득하고 소송 배후의 실적 평가 등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 신화사

인터넷 축구도박 '함정' 경계해야

축구 열광 불이 꺾이지 않고 세차게 이어지고 있다. 12월 9일은 '세계 축구의 날'이기도 하다. 축구경기들이 련달아 펼쳐지면서 인터넷 축구도박 불법행위들도 증가하는 시점이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인터넷 도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1. 생소한 접속 조심
축구경기가 있을 때면 인터넷에는 늘 사람을 유혹하는 '높은 배당률', '빠른 투입' 등 각종 광고들이 등장한다. 만약 투입과 관련된 련결이 뜨면 꼭 조심해야 한다. 이런 련결은 배후에 도박 함정이 숨겨져있어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나 은행카드 자료가 유출되며 심지어 불법사이트에 안내될 수 있다.

2. '내부소식' 조심
인터넷에는 자신이 '내부소식'을 장악했다고 떠벌이며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니 투입하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축구경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내부소식'이든 모두 속임수이다. 작은 리익을 탐내다가 도박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축구도박단체 플랫폼 조심
불법조직들은 단체방 등 방식으로

축구도박 정보를 전파하면서 꼭 리익 혹은 수익을 본다고 유혹한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터넷 도박 군체를 멀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때에 제보하여 인터넷 도박 타격에 노력해야 한다.

4. 법률의식 증강
도박은 개인의 재산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회문제도 유발한다. 주변에서 인터넷 축구도박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조속히 공안기관에 제보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인터넷 축구도박은 위법행위로서 엄중하면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박 제보, 모두의 책임
인터넷 축구도박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공안기관에 제보해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보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축구경기의 다채로운 시각들을 즐기는 동시에 인터넷 축구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도박을 멀리하며 공평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 광명넷

사례로 법 말하기 -14

자위를 위해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은?

사례	법률해석
----	------

리씨가 동네 화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기겁한 리씨는 곁에 있던 나무대기대를 집어들어 큰 개를 쳐서 기절시켰다. 개의 개경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 광경을 본 개주인은 매우 가슴 아파했다. 수의사는 큰 개가 여러 군데 골절되었고 왼쪽 뒤통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진단했다. 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전 제 182 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피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사람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긴급피난 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긴급피난자는 일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례에는 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가 없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 인민넷 - 조문편